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19년 9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EU, '18년 철강수요 회복했으나 수입증가로 무역적자 확대

- 유럽 철강협회(Eurofer)는 '18년 EU 내 철강산업의 직접고용은 32만명, 간접고용은 157만명, 유발된 고용창출(induced job)이 70만명에 이르며 철강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약 €1,480억이라고 발표
- '18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건설(전년비 4.8%↑), 기계산업(3.7%↑) 등 각 수요산업에서 철강수요가 증가했으나,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전년비 1.7배가량 확대
- 한편 지난해와 달리 '19년은 경기 위축으로 유럽 철강가격이 20% 이상 하락했고,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.

◆ 중국, '19-20년 동절기 감산강도 완화 전망

- 중국 생태환경부(MEE)의 "동절기 대기오염 관리방안"이 기존 '생산규제' 중심의 관리에서 '환경규제' 위주로 변화해 실질 감산강도는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
- 해당안에 따르면,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규제한 동절기 감산이 '오염물질 배출규제'로 조정되었으며, 지역별 초저배출 개선목표를 제시하는 등 환경규제 내용이 강조됨
- 기존 감산과 달리 생산량 예측이 어렵고, 국경절 생산규제와 같은 단발성 규제는 증가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는 의견도 제기

◆ 아세안지역, 중국발 설비투자 확대

- 아세안 철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교역이 증가하는 등 철강 산업이 확대되는 움직임
- 주요 설비 투자 중 약 80%는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, 환경 규제 등의 이유로 감축한 중국 내 생산능력이 아세안 지역의 생산능력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
- 한편, 봉형강류는 공급과잉 상태에 도달하는 등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도 존재